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인 규
(국민대)

1.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 Smith)의 *The Vegetarian*에 대한 영미권의 반응과 평가는 출간 초기부터 원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가령 영어번역판의 미국 출판을 며칠 앞둔 2016년 2월 2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서평 기사는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번역자의 손길은 결코 압도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는다.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번역은 구문이나 어휘 표현에서, 나쁜 번역들이 흔히 그러듯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기계적이고 둔한 것으로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다 (Khakpour 2016.2.2)고 칭찬했다. 이러한 호평은 한강의 이 소설이 2016년 5월 맨부커(Man Booker)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정점에 오르는데, 이 상의 심사위원장인 보이드 톤킨(Boyd Tonkin)은 스미스의 번역을 두고, 한

강의 “이 기묘하고도 훌륭한 작품이 영어로 더없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다면서 “완벽할 정도로 적절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아름다움과 끔찍함을 섬뜩하게 혼합한 원작과 모든 점에서 어울린다 고 말했다(Flood 2016.5.16).¹⁾ 그리고 이러한 호평과 찬사는 저명한 해외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자연스레 국내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칭찬으로 이어져, 한 일간지 기사는 “절묘한 개입... 한강을 빛낸 번역은 달랐다 라는 제목 하에 어느 평자의 입을 빌어 “출발어에 충실한 원문주의와 도착어 위주의 과잉번역(overtranslation)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점을 찾은 작업 으로 “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북으로 사용해도 좋은 모범 이라고 스미스의 번역을 높이 추켜세웠다(박선영 2016.5.19).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맨부커상 수상 소식의 기쁨과 흥분이 가시고 국내 번역학계에서 스미스의 번역과 한강의 원작을 차분히 대조하고 검토할 여유를 갖게 되면서, 스미스의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6년 하반기에 스미스의 번역을 논하는 논문이 몇 편 발표되는데, 이 중 김영신의 논문은 “독자 친화적, 수용자 중심적인 번역전략을 택한 스미스의 번역이 뛰어난 가독성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과연 그런 번역이 “한국 문학의 번역에 있어서 바람직한 번역방식 인지 하는 질문을 베누티(Lawrence Venuti)를 거론하며 제기한다(김영신 2016: 48). 그리고 이강선의 논문은 자국화 번역전략을 택한 스미스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려는 노력으로 원텍스트에 심각할 정도로 개입해 번역 함으로써 두 권의 서로 다른 『채식주의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이강선 2016: 307). 특히 김대중의 논문은 스미스의 번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오역 혹은 과도한 의역 사례들 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이로 인해 “영미권 독자들이 한국독자들과 전혀 다르게 작품을 이해할 소지 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원작의 미학적 완성도도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김대중 2016: 41-45).

이처럼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학계의 연구들이 쌓이는 것과 함께 언론계도 스미스의 번역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는데, 그 결과 2017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일보가 스

1) 물론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부정적인 비평을 한 해외평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가령 팀 파크스(Tim Parks 2016.6.20)의 글 참조.

미스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계의 비판에 주목하는 기사를 신는다. 첫 번째 기사는 스미스의 영어번역이 “원작 훼손한 작품 창작 수준 의 번역이라는 문학평론가 정과리의 비판을 전하고 있고(신준봉 2017.1.10), 두 번째 기사는 계간지 『문학동네』 봄호의 글에서 스미스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그와 관련된 잘못된 번역 사례들을 세밀히 짚은 번역가이자 평론가인 조재룡의 비평을 크게 다룬다(신준봉 2017.3.6). 그런데 중앙일보가 주목한 정과리와 조재룡의 글은 스미스의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논문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글의 비평적 태도와 논조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지닌다. 앞의 논문들의 경우, 저자들은 모두 스미스의 영어번역이 과연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번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평적 가치판단은 철저히 유보한다. 오역과 과도한 의역을 상세하게 지적하는 김대중까지도 스미스의 번역 능력을 따지거나 오류와 훼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비판적 평가나 판정은 끝까지 삼간다. 그러나 정과리와 조재룡의 경우 스미스의 번역이 낳은 작품 내용의 변질과 왜곡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조재룡은 한국어의 특징인 생략된 주어와 잘못 파악하는 데서 나타나는 스미스의 “한국어 장악력 부족과, “창작적 재능을 십분 살려 원문에 번역가의 주관과 감정을 덧씌우면서 “임의로 첨가하고 자의적으로 삭제 하는 그녀의 번역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의 어조를 숨기지 않는다(조재룡 2017: 698-705).²⁾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조재룡의 이러한 평가는 ‘완벽’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수식어구들로 포장된 해외 및 초기 국내 언론의 평가와 거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다. 아니 당혹스러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평가가 타당한가? 물론 답은 이미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한국어를 알지 못해 영어 번역본만 읽을 수 있었을 해외 평자의 의례적 칭찬과 원작과 제대로 비교도 하지 않은 채 흥분에 겨워 맹목적으로 토해낸 국내 언론의 추종적 찬사들. 반면

2) 최근 발행된 『영미문학연구』 32호(2017)에 실린 논문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의 저자 김번 또한 오역과 누락처럼 스미스가 “번역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양상 (8)과, 원작의 주제와 섬세한 맥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스미스 “번역의 허술함 (27)을 조재룡보다 더 분명하고 강하게 비판한다. 김번의 논문이 실린 『영미문학연구』 32호는 필자가 이 글을 완성해 학회지에 투고한 뒤에 받아보았음을 참고로 밝힌다.

에 원작과 번역본을 주의 깊게 비교하고 검토한 뒤에 내린 평가. 어느 것이 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니 고쳐서 묻게 된다. 정말 그러한가? 이 질문이 유효함은 스미스의 번역이 맨부커상이라는 저명한 문학상을 받은 번역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엄연한 사실과 조재룡 같은 평자들의 평가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떨치기 힘든 당혹스러움이 손쉬운 판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이 고쳐 묻은 질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을 낳은 당혹스러움, 스미스의 채식주의자를 ‘번역으로 살펴본’ 경험과 하나의 ‘작품으로 읽은’ 경험이 낳은 당혹스러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어쩌면 조재룡이나 다른 검토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답을 확인하는 과정과 제시 방식이 다를 것이며, 그 답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증이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하며 포괄성을 띠 것이다. 이는 조재룡을 비롯한 앞선 평자들의 작업이 그들 주장의 객관적 설득력이나 타당성을 흔드는 이런 저런 결함이나 미흡함을 안고 있다는³⁾ 점과 무관하지 않은데, 설명과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필자는 무엇보다 한강의 소설 원문과 스미스의 번역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우직함’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번역자가 왜 이렇게 옮겼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번역문이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가능한 한 공감적 상상력에 의지하며, 각각의 번역문을 살피고 따져보았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의 의미는 비판과 흠잡기에 있지 않다. 오로지 필자가 번역비평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번역가의 공로와 기여를 인정해주는 한편 좋은 번역이 나오도록 번역가를 자극하고 격려함으로써 좋은 번역이 독자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번역 수준을 높이고 번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인규 2015: 108) 일에 복무하는 것만이 이 글의 목적이다.

3) 가령 분석 사례나 관점의 포괄성이 부족하거나(정과리, 김영신, 이강선) 비평적 진단이 모호한 점(김대중) 등을 들 수 있다. 조재룡의 경우는 사례로 든 영어 번역문 한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써(710) 대단히 훌륭한 글에 무척 아쉬운 결함 하나를 남겼다.

2.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을 번역비평의 대상으로 놓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스미스의 번역을 ‘번역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은 곧 스미스가 원저자 한강의 한국어 원문을 도착어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놓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데, 스미스의 번역관을 살피는 것은 그러한 작업으로 나아가는 한 출발점이 된다. 스미스의 번역관은 그녀의 여러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는 바, 그녀는 기본적으로 문학번역을 “원작을 다른 언어를 사용해 창조적으로 다시 쓰는 작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창조적인 다시 쓰기의 과정에는 “다양한 해석과 편집상의 결정이 포함된다 고 덧붙이는데(Woo 2016), 이것은 곧 그녀의 번역방식이 원문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점은 그녀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가 생각하기에 (...) ‘충실성’은 번역과 관련해 오해를 초래하는 철 지난 개념으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때 편집자가 저에게 해준 딱 한 가지 충고는 ‘더 많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번역자는 리듬이나 언어 사용역 등의 차원에서 원작을 가능한 한 제대로 포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역자가 궁극적으로 충실해야 하는 것은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적 품질입니다. 한 편의 훌륭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은 한 편의 훌륭한 영문학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방해가 될 뿐이라면 구문 같은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단어의 선택이나 구문 등의 차원에서 원작에 지극히 ‘충실’한 번역은 원작의 독자가 했을 경험, 즉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는 경험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한 번역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Montgomery 2014.6.15)

‘충실성’에 대한 위의 언급이 보여주듯이, 스미스는 단어나 구문을 정확히 따라가면서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옮기는 직역주의적 또는 원문주의적 번역 방식을 바람직하지 못한 낡은 번역방식으로 본다. 단어나 구문에 ‘충실한’ 그런 번역은 번역자가 진정으로 충실해야 할 것, 즉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적 품질을

되살리는 데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작의 구문 따위에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원문을 해석하면서 원작이 그 언어 독자에게 주었던 문학적 감동과 효과를 번역어로 최대한 ‘충실하게’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창조적인 다시 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은 스미스에게 제 2의 창작행위나 다름없는 셈인데, 이 ‘창조적 다시 쓰기’는 번역어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번역자의 도착어 구사 능력이 번역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녀가 다른 자리에서 “번역의 힘과 문학번역 기술의 관건은 사실 원천어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도착어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있다 (PRI 2016.5.28)고 말한 것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도착어 능력을 중시하는 스미스의 이런 번역관은 본질적으로 직역과 의역이라는 오래된 대립항 가운데 의역의 전통에 서는 것으로, 쉴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구분법을 빌면 ‘작가를 독자에게로 데려가는’(Schleiermacher 1813: 229) 번역방식에 해당된다. 이 번역방식은 베누티의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곧 ‘자국화’ 방식에 해당되는데, 이런 점에서 스미스의 번역방식은 베누티의 자국화 방식을 적극 추구하는 번역가 이희재를 떠올리게 한다. 이희재(2009)는 베누티의 용어를 ‘들이밀기’와 ‘길들이기’로 옮기면서 자신을 “출발어에 충실한 들이밀기보다는 도착어에 충실한 길들이기 번역을 추구하는 번역자 (260)로 일컫는다. 그는 스미스와 비슷하게 “원문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원작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려던 효과를 번역문에서도 살리는 데 중점을 두 (254-5)는 번역을 표방한다. 또한 스미스처럼 번역자의 도착어 능력, 즉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는 번역자의 언어능력을 시종일관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원문에서 지나치게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215) 도착어 중심의 번역을 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의 이러한 번역관은 그의 저서 『번역의 탄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공비행이라는 비유를 통해 요약되어 있는데, 이 고공비행의 비유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스미스의 영어번역의 실제 양상을 검토하는 하나의 유용한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처음부터 나는 포부가 컸다. 원문에 충실하되 한국어로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을 하고 싶었다. 원문에만 얽매이는 직역이 ‘낮은 포복’이고 원문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중시하는 의역이 ‘고공 비행’이라면 나는

아슬아슬한 ‘저공 비행’이 좋다고 생각했다. 원문의 걸을 어떻게든 번역문에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번역을 하면서 나는 한국어에 눈떴다. (...) 번역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 그리고 그때부터 원문에서 멀어지는 고공 비행의 길로 날아올랐다. (7-8)

3.

이제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의 실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스미스 번역의 전체적 성향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녀의 번역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는, 원문을 충실하게 따라가며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를 가능한 한 모두 영어로 되살려 옮기고자 애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원문의 전체적 의미와 느낌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생략과 압축, 첨가와 확장을 수시로 실행하고 어구나 문장을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식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그녀의 번역문에는 원문과 비교할 때 형태적 변경과 내용적 변경이 모두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다시 말해 그녀의 번역은 원문에 밀착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번역자가 개입하여 나름의 가공을 가한 번역인데, 이 과정에서 그녀의 모국어 구사력 즉 창작적 글쓰기 능력이 훌륭하게 발휘된다. 그 결과 번역어인 영어권 독자에게는 “번역자의 손길이 지나갔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김영신 2016: 44), 즉 “원래 영어로 쓴 것이 아닌 듯이 느껴지는 단락이나 표현이 하나도 없다 (Dowd 2016.5.17)고 여겨질 만큼 매끄럽게 읽힌다.

스미스의 이러한 번역방식은 바로 철저히 번역 독자와 도착어 중심인 번역 방식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희재의 고공비행과 아주 흡사하다. 이희재는 원작의 문장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수식관계나 접속관계를 재구성하거나 생략을 통한 압축이나 단순화, 첨가를 통한 명시화 등을 실행함으로써 한국어 번역문의 한국어다운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고공비행의 번역방식은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 전반에 걸쳐서 시종일관 발견되는 주된 특징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붙이고, 그 위로 붕대를 친친 감고, 아홉

살의 나는 대문간에 나가 서 있어. 무더운 여름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러내려. 개도 붉은 혀바닥을 턱까지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어. (52)

.... the dog that sank its teeth into my leg is chained up to Father's motorcycle. With its singed tail bandaged to my calf wound, a traditional remedy Mother insisted on, I go out and stand at the main gate. I am nine years old, and the summer heat is stifling. The sun has gone down, and still the sweat is running off me. The dog, too, is panting, its red tongue lolling. (41)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스미스가 원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문장구조와 수식관계를 재배치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생략과 첨가를 실행하며 번역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원문 “그 위로 봉대를 친친 감고 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한 뒤 “bandaged 라는 단어로 간단히 압축해서 옮기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의 토속적 민간요법 지식이 전혀 없는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위해 “a traditional remedy Mother insisted on 라는 말을 임의로 첨가한다. 또한 “아홉살의 부분을 세 번째 문장으로 이동시켜 번역했으며, 네 번째 문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라는 원문을 “The sun has gone down, and still 이라는 원작에 없는 내용으로 변형 내지는 치환해서 옮겼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번역문은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원문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뿐더러, 가독성 면에서도 어색함이나 막힘이 전혀 없이 원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읽힌다.

다음의 예들도 원문의 세밀한 의미와 문장구조, 수식관계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구문조작과 단어나 표현의 가감을 실행함으로써 원문의 대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 리듬이나 효과도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되살리는데 성공한 경우라 하겠다.

1) 그는 정 많은 아내의 책임감있는 얼굴을, 손가락의 약을 쏟을까 조심하며 아들에게 다가가는 신중한 뒷모습을 보았다. (80)

He studied his wife, a picture of responsible compassion as she carefully approached their son with the medicine. (63)

2) 다리는 허공으로, 손은 땅속의 핵으로 뻗어나갔을까. 팽팽히 늘어난 허리가 온힘으로 그 양쪽의 힘을 버텼을까. (206)

Had her legs stretched high up into the air while her arms extended all the way down to the earth's very core, her back stretched taut to support this two-pronged spurt of growth? (170)

스미스의 이런 고공비행 번역방식은 이따금 원문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거나 문학성이 짙은 표현을 낳기도 한다. 가령, “밤을 꼬박 밝히고, 그는 마스터 테이프를 꺼낸 뒤 컴퓨터를 껐다.(114)는 “The sun was well up the next day when he took out the mastertape and turned off the computer.(94) 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라는 의미에 가까운 스미스의 영어 번역문은 (비록 원문에서 약간 멀어지긴 했지만) 인혜 남편이 그의 처제 영혜를 찍은 비디오 편집 작업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했는가를 원문보다 더 선명하게 독자에게 전달한다. 한편 인혜 남편이 옛 애인과 만나는 장면에서 “수백번의 입맞춤의 기억이 그의 입술을 덮었다.(137)는 “The kiss was a palimpsest of memories, of all the countless kisses they'd shared in the past.(111) 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에서 꽤 높이 날아오른 고공비행이지만 문학적 상상력과 재치를 발휘한 창의적 은유 표현을 통해 인혜 남편이 그 순간 느끼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정을 원문보다 더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인혜가 빗속을 뚫고 축성산의 병원으로 영혜를 찾아가는 장면과 영혜가 강제 약물 주입을 거부하며 피를 토하는 장면에 속하는 다음 경우들 역시 비슷하게 스미스가 창의적 표현력과 문학적 기교를 발휘하면서 고공비행으로 날아오른 예들이다.

1) 조금 잦아들었다고 하나 아직 기운찬 빗발이 쏟아지고 있다. (157)

The rain is still pouring down, its measured cacophony slightly less vicious. (128)

2) 소매를 걷은 의사의 흰 가운 가득 점점이 영혜의 피가 튀어 있다. 얼핏 커다란 소용돌이를 연상시키는 그 무늬를 그녀는 멍하게 바라본다. (214)

Yeonghye's blood is splashed all over the doctor's white gown, even on his rolled-up sleeves. In-hye stares blankly at the splatter pattern. A whirling galaxy of bloody stars. (176)

물론 문학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스미스의 이런 고공비행 번역이 어색하게 읽힐 때도 없지 않다. 가령, 영혜가 칼로 팔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라는 문장은 “Blood ribboned out of her wrist. The shock of red splashed over white china. 라고 번역되었는데, 팀 파크스(Tim Parks)가 지적하듯이 문학적이고 “멋진 은유 (fancy metaphor)를 구사한 이 번역문은 원작의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일인칭 화자 즉 영혜 남편의 건조하고 상투적인 말투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Parks 2016.6.20). 하지만 1부에서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미스의 창의적 고공비행 전략은 전체적인 스타일에 있어서 한강의 원작과 상당 부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본의 가독성을 맨부커상의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런데 원문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원작의 문학적 스타일과 가독성을 성공적으로 되살리는 듯한 스미스의 고공비행 번역방식은 이회재의 고공비행과 사뭇 다른 양상을 띠 때가 많다. 비록 저공에서 고공으로 날아오르는 비행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회재의 고공비행 번역은 어디까지나 원문이라는 지표면이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높이 오르는 고공비행이다. 즉 그의 번역은 원문의 장악력이 미치는 범위 너머로 고도를 높이는 법이 결코 없다. 하지만 스미스의 경우는 원문으로부터 너무 자유롭게 높이 솟구치거나 너무 멀리 벗어나는 바람에 원문이라는 바닥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고도의 비행, 즉 초고공비행이 될 때가 빈번하다. 그리고 그 결과 번역이 그 자체만으로는 매우 잘 읽히지만 원문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독자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 한 예를 들어보자.

며칠 전 처제의 집을 다녀온 밤 그는 (1)견딜 수 없는 충동의 힘으로 어둠 속의 아내를 안았었다. (2)신혼 때에도 아내에게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욕망에 스스로 놀라며, 아내 역시 놀라게 했다.

“당신 왜 이래요? (99)

That night a few days ago after he'd gone to see his sister-in-law, he'd reached out in the darkness and pulled his wife to him, (1)without giving himself time to think what he was doing. (2)Surprised and confused by

this apparent show of desire, his wife still had no reason to question that this was what it was. If she'd looked, she would have seen something closer to fear in her husband's eyes. But it was dark.

“What's got into you? (81)

2부에서 처제를 방문했다가 그녀의 나체를 본 인혜의 남편이 그날 밤 아내에게 성적 욕망을 푸는 장면인데, 먼저 첫 번째 밑줄친 “견딜 수 없는 충동의 힘으로 가 “without giving himself time to think what he was doing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자신이 뭘 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라는 뜻의 번역문은 원문과 비교할 때 구문과 표현 방식, 길이,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지닌다. 그나마 이 부분은 원문과의 의미의 유사성을 억지로라도 약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밑줄친 부분은 그런 유사성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자신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게 했다는 의미의 원문이 번역문에서는 아내가 놀랐다는 사실만으로 축소되었고, 이와 동시에 원문에 전혀 없는 내용, 즉 남편의 행위에 대한 아내의 반응과 남편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임의로 첨가되었다. 그러면서 그리 길지 않은 문장이 세 문장으로 상당히 길게 늘어났다. 번역자가 원문과 별 상관없이 자신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내용을 바꿔 쓴 번역문으로, 번역문에 대한 원문의 구속력, 또는 원문에 대한 번역문의 종속성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다시 말해 번역문은 원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높이 비상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고맙게도 그렇게 살가운 제안을 해주었지만, 그때 영혜의 입가에 어린 조용한 미소는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마치, 그녀가 영혜를 낯설게 느끼는 것만큼이나 영혜 역시 그녀를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침착하다는 인상을 넘어 거의 적막하게 느껴지는 그 얼굴 앞에서 그녀는 대답을 잃었다. (159)

There'd been something faintly unsettling about the quiet smile playing around Yeong-hye's mouth. What seemed to be happening was that Yeong-hye was retreating from herself, becoming as distant to herself as she was to her sister. A forlorn face, behind a mask of composure. (130)

인혜가 아들 지우를 낳았을 때 영혜가 병원에 찾아와, 언니가 시골 친정집

에 아기를 안고 내려갈 일을 걱정하며 말을 건네는 대목인데, 여기서 스미스는 원문의 밑줄친 부분과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줄, 즉 “엄마 계신 J읍까지 혼자 안고 갈 수 있겠어? 운전이야 형부가 하겠지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같이 갈까? 를 과감히 생략해버린다. 이것은 물론, 산모가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산후 보살핌을 받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함축된 원문을 영어권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독성 차원을 고려한 생략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에 없애이지 않는 자유로운 번역전략에 의해 원문을 사라지게 했고, 그 결과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번역문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밑줄친 부분 다음의 원문에 대한 전체 번역문이 얼핏 보기에 원문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번역자의 임의적인 해석과 조작, 생략과 변형 등으로 인해 원문과 동떨어진 일종의 재창작 수준의 다시쓰기가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초고공 비행 방식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원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날아오르는 스미스의 초고공비행은 요컨대 정밀한 언어적 옮겨 쓰거나 되살려 쓰기 차원이 아닌 일종의 창조적인 다시 쓰기, 즉 개작 내지는 재창작의 차원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창조적 다시쓰기’로서의 이 자유로운 번역 방식은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 정도로 그 빈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예들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듯이, 크게 세 가지 양태, 즉 내용 변경, 첨가와 확장, 생략과 압축의 양태로 실행된다. 그 예들을 하나씩만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원 뜰에는 아침식사를 마친 환자들이 나와 있었다. 이른 아침 한때의 서늘함을 맛보러 나온 것이다. 장기입원 환자들인지 지치고 쓸쓸한, 그러나 나름대로 평화로운 모습들이었다. (63)

The only people in the garden were those patients who had already finished their breakfast. The early-morning chill, which would pass off soon enough, was fairly mild even now. You could tell who was a long-term patient based on how they looked--whether fatigued and gloomy, or peaceful. (51)--<내용 변경>

2) 그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혜가 발견된 산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전화를 끊고 나서였다. (155)

Only after she had hung up did it occur to her that the rain she had seen all day must have been pouring down on the mountain where Yeong-hye had been found too. An indiscriminate connection, their existences briefly aligned. (127)--<첨가와 확장>

3)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에게 도마에 칼질을 하는 걸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웬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밖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굴곤 했지. 그렇다고 어제 꿈에 죽거나 죽인 사람이 얼마나 언니였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 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꺾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36-7)

Intolerable loathing, so long suppressed. Loathing I've always tried to mask with affection. But now the mask is coming off.

That shuddering, sordid, gruesome, brutal feeling. Nothing else remains. Murderer or murdered, experience too vivid to not be real. Determined, disillusioned. Lukewarm, like slightly cooled blood. (28)--<생략과 압축>

원문에서 멀리 날아오르기를 즐기는 이런 초고공비행은 스미스의 번역본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이 자유로운 비상에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 하나가 뒤따른다. 번역이 원문의 장악력이나 영향력을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적으로 자유롭게 수행될 때, 그 번역은 원문과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일, 즉 오역인지 아닌지 따지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원문과 따로 노는 번역은 필연적으로 원문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경우 그 불일치가 원문을 잘못 해석한 오역의 결과인지 아니면 번역자의 비상(飛上)에서 나온 창의적 변형의 결과인지 명확히 판정하기가 종종 힘들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초고공비행 번역에는 바로 그런 애매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하나의 역설적 현상 즉 오역이지만 오역이 아닐 수 있는 ‘아포리아’의 빈번한 발생이 그녀 번역본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다음의 예를 보자.

뉘인 사지를 버둥거리며, 영혜는 마치 강박을 끊고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것 같다. (210)

Her bound limbs writhe, compelled by some unknown impulse, as if she is trying to throw herself at In-hye. (173-74)

‘뾰족 못하게 묶거나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힘을 끊어버리고’라는 의미를 지닌 원문이 번역문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라는 의미의 영어표현으로 완전히 다르게 옮겨졌다. 명백한 오역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판정하려는 순간 멈칫하고 만다. ‘강박을 끊는다’는 말이 극히 단순한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표현이라는 사실에 뒷목을 잡히고 다시 묻게 된다. 이것은 정말 오역인가, 아닌가? 번역자가 ‘강박을 끊는다’는 어구를 잘못 파악해서 발생한 엉뚱한 오역인가, 아니면 영혜의 강한 몸부림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결과인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역인데 오역이 아닐 수 있는 이 난감함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예를 하나 더 보자.

통원치료를 권고받은 것은 그쪽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담당의와 면담했을 때였다. (173)

It was when she'd met with the doctor at the other hospital, who wanted Yeonghye to be discharged, that she'd been advised to consider outpatient care. (142)

인혜는 서울의 종합병원에 있는 동생의 입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동생을 축성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자 담당의를 만난다. 따라서 이 순간 병원에서 영혜의 퇴원을 원하는 주체는 인혜가 분명하다.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퇴원시키기를 바라는 주체가 의사로 표현되었으니, 원문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난 오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의사와 인혜의 대화에서 담당의는 영혜의 상태가 좋아졌다면서 계속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를 해도 될 것이라고 권한다. 즉 담당의가 영혜의 퇴원을 결국은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내용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 번역자가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원문의 맥락을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하고자 내용을 과감히 변형시킨 것일 수도 있다. 게

다가 이것은 의사의 판단과 충고를 거부하고 영해를 축성산의 병원에 입원시키는 인혜의 결단을 오히려 더 분명히 부각시키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역인가, 아니면 오역처럼 보이는 자유 의역인가? 스미스의 번역본은 이 같피없이 몇몇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든다.⁴⁾

그러나 이 난감함이 해소되는 순간들, 오역인지 아닌지가 분명한 순간들 또한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것은 곧 오역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로,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애매함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반갑기까지 한 순간들이다.

손가락을 드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는 네 시간 가까이 벌거 벗고 있었던 그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그녀의 나신을 찍겠다는 계획뿐이었지만, 전혀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109)

Watching her as she ate, it suddenly occurred to him that, despite her having spent the past four hours stark naked, nothing he'd done had drawn from her any meaningful response. Of course, his plan hadn't been to get her aroused, only to film her naked, but all the same it was surprising that the process hadn't provoked in her even the slightest feelings of desire. (90)

원문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 성욕을 느끼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번역문이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오역에 대한 애매한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것 또한, 오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임의 변형이 아닌가 하고 머리를 긁기 십상이다. 특히 번역문이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읽히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 더욱 그러기 쉽다. 하지만 가만히 앞뒤를 살펴보면 번역자가 원작의

4) 다음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한 예일 것이다.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다니. (21) / “As far as I was concerned, the only reasonable grounds for altering one’s eating habits were the desire to lose weight, an attempt to alleviate certain physical ailments, being possessed by an evil spirit, or having your sleep disturbed by indigestion. (14)

문맥을 잘못 짚는 바람에 한국어 문장을 반대로 해석한 오역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번역자는 여기서 “그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상황적 의미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해석 가능한 표면적 의미, 즉 ‘그녀의 마음 어떤 부분도 자극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성적 반응도 그녀에게서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으로 오해했고, 그 결과 뒷문장의 “전혀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의 주체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잘못 확신한 것이다.⁵⁾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지우와 함께 장식해 걸어놓은 모빌을 떼어낸 후 끈을 풀기 시작했다. (201)

Every evening for the past week, she would take down the mobile which Ji-woo had helped her to decorate, and begin to untie the thick cord. (165-66)

원문의 수식관계를 잘못 짚어 발생한 오역이다. 번역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그녀는 모빌을 떼어내서 두꺼운 끈을 풀기 시작하곤 했다’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그러나 원문은 남편이 잠든 후 자리에서 일어난 인혜가 지우의 방으로 가서 ‘지난 일주일 저녁마다 지우와 함께 장식해놓았던’ 모빌을 떼어내고 끈을 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즉 밑줄친 부사구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는 ‘장식해 걸어놓았다’에만 걸리는 것인데, 번역자는 이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오독한 것이다. 사실 이 대목은 인혜가 남편한테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한 직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생각하고, 모빌 끈을 풀어 호주머니에 넣은 뒤 목을 맬 나무를 찾아 뒷산으로 올라가는 ‘중대한’ 장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한 스미스의 번역본은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내용상의 혼란을 야기해 독자의 정확한 작품 이해를 해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셈이다.

5) 이처럼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 맥락과 어법을 파악하지 못해 표면적 의미를 직역하듯 잘못 옮긴 경우는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38)”를 “You must be ashamed of her! (27)”로 번역한 데서도 발견된다. 장인이 사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인데, 생략된 주어를 파악하지 못한 번역자는 이 문장을 ‘나한테 책이 없네’(=나는 책이 없네)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여 ‘자네는 면목이 없네.’라고 잘못 해석한 뒤 이를 ‘자네는 그녀가 부끄럽겠네’라는 식으로 옮긴 것이다.

4.

이제까지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영어번역으로서 드러내는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스미스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문의 자구나 문장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원문을 대하는 이회채식 고공비행 번역으로,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을 통해 원작의 문학적 느낌과 효과를 영어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인 철저히 도착어와 수용자 중심의 번역이다. “원문에 코를 박고 번역하지 않고 원문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원미 2013: 40-41) 번역했다고 할 스미스의 이 ‘자국화’ 내지 ‘길들이기’ 번역전략은 전체적으로 뛰어난 가독성을 성취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스미스의 이 원문과의 대화는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때가 많다. 즉, 번역자인 스미스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원문을 압도해버림으로써, 원문의 의미가 번역문에 의해 묻히거나 변질된 내용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잦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언제나 원문을 되돌아보는 이회채식 고공비행이, 원문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쳐 날아오르는, 때로는 원문의 대기권을 아예 벗어나기까지 하는 초고공 비행으로 수시로 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번역문 자체의 가독성은 계속 뻗어나가지만, 원문과 크게 다른 내용들이 이런 저런 확실한 오역들과 함께 번역문 곳곳을 특징처럼 장식한다. 그리하여 뛰어난 가독성을 지닌 번역문은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아름다운 애인’(belle infidèle)임을 스스로 고백한다.

자, 그렇다면 ‘부정한 미인’과도 같은 스미스의 이 번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이 지닌 ‘부정한 미인’의 특징 중 비평적 진단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나간 그녀의 초고공 비행 번역방식, 즉 창작이나 개작에 가까운 자유로운 번역방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녀의 번역에 산재해 있는 오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먼저 초고공 비행 번역의 문제를 보자. 임의적인 내용 변경과 첨가와 확장, 생략과 압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스미스의 과감한 번역들은 과연 번역으로서 ‘괜찮은’ 것인가? 이는 원작을 왜곡하고 훼손한 잘못된 번역들인가, 아니면 번역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한 가능한 번역들인가? 평역과 편역, 번안과 개작, 모작과 창작의 성격

이 뒤섞인 이 자유로운 번역들은 원문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존중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들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가, 아니면 번역의 다양한 전략과 방식 가운데 선택 가능한 하나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정답이 없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번역과 원문 사이의 관계 내지는 거리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판단이 서로 갈릴 수밖에 없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번역어와 독자 중심의 자국화와 기능주의적 번역 풍토가 지배적인 영미권에서는 원문에 대한 번역자의 상대적 자율성과 거리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곤 한다. 심지어 원문과 그 거리가 아주 먼 변안까지도 망설임 없이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곤 한다. 가령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 같은 이는 번역과 변안의 구분을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변안도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바스넷 2012: 50, 80-85), 클리퍼드 랜더스(Clifford Landers)의 경우도 문학번역의 실제 과정에서 변안의 기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옹호한다(Landers 2001: 55-59). 따라서 이런 느슨한 관점에서 볼 때, 스미스의 자유로운 창작적 번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용인 가능한 하나의 번역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원문을 존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한국의 번역풍토에서는 번역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문의 권위를 되도록 지켜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이희재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공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번역은 사실상 원문의 의미와 표현방식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따르는 매우 ‘낮은’ 고공비행이다. 이는 이종인이나 김영하 같은 다른 비슷한 자유파적 번역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원문 존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스미스의 번역은 원본을 깔아뭉개, 왜곡과 훼손으로 유린한 비윤리적 번역으로서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번역이다. 그리고 이를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연결할 때, 스미스의 번역은 바로 니체가 말한 “정복으로서의 번역 (translation as conquest)(Nietzsche 1882: 262)을 전형적으로 실천한 사례로서, 영미권의 제국주의적 자국화 번역이 테올로기의 한 극단적 사례가 된다.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스미스의 번역은 이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듯이 보인다. 원문이 존재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특수한 언어행위로서 번역의 본질을 생각할 때, 번역이 자신의 존재조건인 원문을 존중하는 것

은 당연한 윤리적 요구이다. 그런데 스미스의 번역은 이 윤리적 당위를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다. 이를 그저 원문과 대강 뜻과 느낌이 비슷하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원문을 자유롭게 주물러 자기 나름대로 다시 써도 무방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말하자면,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원문과 멀어지는 일이 원문의 뜻과 느낌을 최대한 되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습관적으로’ 일어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자신을 찌르듯 환멸하며 (96)을 옮긴 “his stammering words seemed to betray him, showing him the situation for what it really was in a flash of painful clarity (79)와 “숫구치는 충동만이 그를 삼켰다 (138)를 옮긴 “Nothing of that existed now (112)처럼, “까닭 없이 창조되 거나(조재룡 2017: 697) 자의적으로 변형된 문장들이 너무 많다.

번역자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윤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스미스의 태도는 그녀의 번역에서 생략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단어나 짧은 어구 차원에서 일어난 약 170회의 단순 생략은 제외하고 어절이나 문장 차원에서 일어난 생략만 계산해도, 원작을 기준으로 총 7쪽(3.2%) 이상 되는 분량이 스미스의 번역에서 생략되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부에서 원작의 약 11줄, 2부에서 약 54줄, 3부에서 약 77줄, 총 142줄이 생략되었는데, 대부분 1줄 내외의 생략이지만 경우에 따라 4줄, 6줄, 8줄, 심지어 10줄 이상 문장이 생략되기도 했다. 10줄 이상 큰 덩어리로 생략된 경우만도 세 곳이나 되는데, 인혜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하는 장면 약 10줄(원작 120-21, 번역본 98-99),⁶⁾ 인혜가 남편과 동생 영혜가 서로 엉켜붙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대목 약 14줄(원작 167, 번역본 137), 그리고 인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를 떠올리며 마지막 본 남편의 얼굴을 언급하는 부분 약 18줄(원작 192-93, 번역본 159)이 그것이다. 특히 마지막 경우는 인혜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와 단서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별 이유 없이 생략됨으로써 주인공 인혜에 대한 독자의 좀 더 깊은 이해 가능성이 봉쇄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원작에서 군더더기로 보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이야기의 밀도와 독서의 속도감을 높이고자 한, 일종의 창의적 선택과 개입이었다고

6) 이 대목은 생략에 맞춰 내용의 편집과 변형까지 크게 가한 경우다.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번역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옳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독단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 모든 자의적인 생략과 변형은 결국 원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할 수 있다는 번역자의 느슨한 윤리의식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분량과 빈도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원본의 왜곡이자 훼손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이렇게 윤리적 차원의 판정을 내린다고 해서 스미스의 번역을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번역과 원문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시쓰기로서 번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스미스의 번역방식은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형과 생략과 첨가로 얼룩진 스미스의 초고공비행 번역방식을 비윤리적인 원문 유린이라고 한 편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그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 다른 편에서는 여전히 자기네 관점에 의지해 스미스의 번역을 창조적인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전략을 훌륭하게 실천에 옮긴 모범으로 적극 옹호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럴 때 가능한 해결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문제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의 관점과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 맡긴 채 더 이상 건드리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스미스의 초고공 비행 번역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 존중이나 번역자의 자율성이나, 보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강의 원작을 폭력적으로 왜곡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번역방식으로서 충분히 용인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오역의 문제를 보자. 번역이 이질적인 두 언어간의 전환을 꺾이는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행위인 한 오역은 번역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오역 판정이 애매한 경우들을 다 빼고도, 스미스의 번역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할 만큼 ‘명백한’ 오역이 많은 편이다. 이 오역은 단순한 어휘 차원의 사소한 착오에서부터 문법적 지식의 부족이나 맥락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장 차원의 큰 오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미 두세 개의 예를 들었지만 좀 더 덧붙이면, 스미스는 가령 “더 이상 아내의 이상한 행동 (18)에서 ‘더 이상’을 ‘더 이상한’으로 잘못 본(“the strange behaviour of my even-stranger wife)(11) 것처럼 부주의한 착오를 가끔 범한다. 그리고 ‘경기(驚氣)’(156)를 ‘경기(競技 game)’(128)로, ‘춘화(春晝)’(73)를 춘화(春花 spring flowers)(58)로 번역한 경우처럼 단어를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생전 전화하는 법이 없던 장인 (37)을 “He'd never used a telephone in his life (29)라고 옮긴 것처럼 한국어의 일반적 사용 맥락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거나, “내장을 다 빨아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172)을 “You won't be satisfied even when you've sucked my insides dry! (142)라고 옮긴 것처럼--조재룡이 강조해 지적했던바(조재룡 2017: 699-701)--한국어의 특징인 생략된 주어와 잘못 파악할 때가 많다(생략되지 않은 주어인데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다음의 두 예처럼 정확한 상황과 맥락을 놓쳐서 원문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번역할 때도 적지 않다.

1) [아내는 꿈쩍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 그녀는 맨발로, 봄가을까지 입을 얇은 잠옷차림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우뚝 서 있었다.] 마치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혹은 귀신이라도--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13)

Her face was turned away from me, and she was standing there so unnaturally still it was almost as if she were some kind of ghost, silently standing its ground. (7)

2)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52)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
The motorcycle engine starts, and Father begins to drive in a circle. (41)

첫 번째는 아내가 냉장고 앞에 귀신이라도 있는 듯이 바라보며 서 있는 상

황을 아내가 귀신처럼 서 있는 것으로 잘못 짚은 경우고, 두 번째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역과 자의적 변형을 겸비한 경우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원문은 옛날에 시골 마을에서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채 두드려 패서 죽이고 불로 태우던, 그리고 그 개를 잡아 서로 나눠먹던 다소 야만적인 관습을 배경으로 한 문장이다. 그런데 번역자는 이런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원작의 내용이 표현하는 전체적 맥락과 전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그 결과 엉뚱한 번역을 내놓았다. 문제는 번역문을 읽으면, 아버지가 개를 나무에 매달고 램프 불로 그슬린 다음— 이때 두들겨 패지는 않고 그 대신—오토 바이에 개를 묶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상황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러잖아도 이미 잔인한 행위가 더욱 잔인한 행위로 변형되어 잘못 전달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덜 고통스러운 징벌’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민족으로 묘사되고 말았다.⁷⁾

스미스의 오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문 도처에서 그 부정확한 실체를 드러낸다. 사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그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드러진 예들만 좀 더 ‘간추려’ 맨 뒤에 부록으로 덧붙인다), 스미스의 이런 오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들이 번역문 자체만을 읽을 때는 전혀 오역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의 두 경우는 물론이고, 가령 앞에서 언급한 “내장을 다 빨아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172)의 번역문 “You won’t be satisfied even when you’ve sucked my insides dry! (142)처럼 원문과 반대 의미로 오역한 것들조차도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번역문만 읽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잘 읽힌다. 즉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문과 비교해볼 때만 비로소 오역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만큼 스미스의 번역이 가독성 면에서 뛰어난 수준임을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역을 덮어버릴 만큼 우수한 가독성을 가능케 한 스미스의 특출한 상상력과 탁월한 글쓰기 능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7) 맨부커상 수상 직후 한 국내 일간지 기사는 “오기, 오역도 새로운 시도의 번역 이라는 ‘당혹스러운’ 제목 하에, 이 오역을 한 평자의 입을 빌어 번역자의 의도적인 “오역처리 라고, 역시 ‘당혹스럽게’ 옹호해주었다(김고금평 2016.6.1). 당시 과열된 흥분과 맹목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이처럼 스미스의 번역은 그 뛰어난 가독성의 표피 아래에 흥미로운 오역의 존재를 과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오역들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번역자로서 스미스의 한국어 독해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그녀가 한국어를 배운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사적인 변명은 될지언정 번역자로서 저야 할 오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녀의 *The Vegetarian*은, 비록 탁월한 상상력과 글쓰기 능력에서 비롯된 뛰어난 가독성이 버티고 있지만, ‘번역자의 무덤’인 오역에 관한 한 번역으로서의 품질과 신뢰성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번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역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 결론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스미스의 번역은 가독성이나 정확성이나, 보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맨부커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는 뛰어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번역작품으로서 수준 미달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5.

원작을 폭력적으로 훼손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번역, 거침없이 술술 읽히지만 사실은 오역이 부지기수인 번역, 이 상대주의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모순과 표리부동으로 도전하는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우리는 어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일은 번역에 관한 비평적 최종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즉 ‘이 번역은 과연 좋은 번역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과연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바람직하게’ 번역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글의 첫 부분에서 인용한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문학번역은 “원작의 독자가 했을 경험, 즉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는 경험에 충실 한 번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작의 작품성, 문학적 효과와 느낌을 번역문에서 최대한 되살려 번역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문학번역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자신의 말처럼 한강의 작품이 지닌 문학성을 그

녀의 번역에서 바람직하게 제대로 되살렸는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즉, 그녀의 *The Vegetarian*은 한강의 소설 원문의 섬세한 내용과 결, 리듬과 함축성을, 작품의 문학과 그 효과를 영어로 ‘훌륭하게’ 잘 옮겼다고 할 수 없다.

스미스의 번역방식은 앞에서 보았듯이, 원문의 세부적인 표현과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지닌 문학을 매 번역문에 되살리고자 애쓰는 미시적 방식보다는 자의적인 변형과 조작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와 느낌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시적 방식, 즉 초고공 비행 번역방식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원작의 문학을 어느 정도 살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미시적으로는 원작의 문학을 오히려 왜곡하고 파괴했다. 그녀의 초고공비행 번역들은 원작의 세부 내용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변형시킴으로써 그 섬세한 숨결과 느낌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즉 원문에 대한 정확성과 충실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희생해서 전체적인—따라서 부분적인—문학적 등가성만 실현한 셈인 것이다. ‘미시’와 ‘거시’, 충실성과 등가성을 다 함께 성취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 ‘미시’를 손쉽게 버리고 그 대신 ‘거시’만 각별히 좇은 번역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미시’라는 정부(正夫/正婦)를 배반하고 ‘거시’라는 정부(情夫/情婦)를 섬기는 ‘부정한 미인’, 그것도 오역이라는 배반의 증거가 특히 많은 ‘너무나도 부정한’ 미인인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번역은 가독성이 뛰어나지만 부분적으로만 문학적 등가성을 성취했을 뿐 결코 ‘바람직’하거나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번역이다.

스미스 번역의 부정함을 구성하는 주요소인 초고공비행 번역방식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것이 어쩌면 오역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변형과 개작을 수시로 감행하는 그녀의 (초)고공비행 번역 방식이, 순수하게 번역자의 자유로운 번역관에 따른 전략적 ‘선택’과 실천, 즉 원작의 고유성과 특징, 문학과 그 효과를 되살리는 데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이회재의 고공비행 선택과 실천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가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한국어 해독 실력이 원작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만큼 높은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녀가 불가피하게 원문에 대한 문학적 등가성의 미시적 실현을 포기하고 거시적으로만 모색하는 (초)고공비행의 자유와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든다. 즉, 스미스는 한국어 원문을 그 세밀한 의미와 그 문학적 함축성까지 다 제대로 파악할 만큼 한국어 독해력

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탓에, 원문과 밀착하지 않아도 되는 (초)고공비행 번역으로 어쩔 수 없이—또는 적어도 손쉽게—나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오역의 구체적 양상과 원인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혐의와 심증은 특히 굳어진다. 스미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어쩌면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스미스의 번역이 지닌 그 모든 특이한 성격, 그 모든 모순과 표리부동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설명일지도 모른다.

맨부커상은 번역상이 아니라 문학상이다. 번역자 스미스가 원작자 한강과 함께 맨부커상을 받은 것은 그녀의 번역이 성취한 번역 자체로서의 뛰어난 때문이라기보다는 번역이라는 수고로운 일을 통해 한강이라는 외국소설가의 훌륭한 문학작품을 영미권의 독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 그녀의 문화적 기여와 공로 때문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기반으로 가독성 높은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스미스의 공로를 귀중하게 반기고 칭찬하는 일과 그녀의 번역이 과연 훌륭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해야 할 사항이다. 이 구분이 없이 단지 저명한 문학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번역을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번역의 “모범 이라고 무작정 칭송하는 것은 경박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번역의 본질과 윤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같은 이치로, 스미스의 번역이 당장 문제점 많은 번역이라고 해서 스미스의 중대한 기여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번역자로서 그녀가 지닌 굉장한 잠재적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이 또한 번역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행위일뿐더러 한국문학 번역의 귀중한 발전 기회를 물리치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스미스가 번역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가 비록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창의적인 상상력과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가독성 높은 번역물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그녀가 번역자로서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따라서 이 확실한 증거 역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은 글쓰기 라고 이중인은 천명했다(이중인 2009: 7).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은 바로 이 글쓰기 능력을 탁월하게 지닌 번역자 스미스의 –복합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승리이다. 이처럼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지닌, 게다가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적 상상력까지 겸비한 ‘유능한’ 한국문학 번역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한국문학에게는 실로 커다란 행운이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이 현재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틀림없지만, 이 한국어 능력 부족은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한국문학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그녀의 한국어 해독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따라 그녀의 당혹스러운 초고공 비행은 자연스레 이회재식의 낮은 고공비행 쪽으로 그 고도가 적절히 조정될 것이며, 자의적인 변형이나 생략도 최소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녀는 머지않은 장래에 ‘충실한 미인’이라는 번역의 이상까지도 넘보는 뛰어난 한국문학 번역자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우리가 각별한 존중과 함께 올바른 평가와 애정 어린 비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한국문학 번역의 소중한 큰 자산이다(스미스의 번역 *The Vegetarian*을 길게 논한 이 글의 주 목적도 바로 이처럼 스미스가 뛰어난 한국문학 번역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즉 그녀의 번역에 대한 가능한 한 엄밀하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녀의 번역능력이 처한 현주소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그녀가 앞으로 더 나은 번역을 하도록 비평적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The Vegetarian*의 개정판이 나오기를 강력히 회구하며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스미스의 이 번역이 단순히 수많은 번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명한 문학상을 받은 번역으로서 한국문학 번역을 대표할 비중 있는 번역물이라는 점에서 이 개정판 출판은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번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번역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번역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개역의 힘든 작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터인데, 기왕에 이 번역 출판을 지원했던 대산문화재단이나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곳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후속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장래가 유망한 번역자 스미스 본인과 한국문학번역 모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필자도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검토 자료를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번역과 번역비평의 ‘생산적인 소통’과 ‘행복한 협동’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 록>

- 1) 고가의 장비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지만 (72)
He was grateful to be able to use the overhead equipment free of charge (57)
(고가(高價)를 고가도로(高架鐵道)(overhead railway)의 고가(高架)로 오해.)
- 2) “지금은 웬지... “어떻다는 거야? “안돼 보여. (137)
“Now, some reason... “What? “It looks wrong. (111)
(안쓰럽게 보인다는 뜻의 ‘안돼 보여’를 틀렸다는 뜻의 ‘안 된다’로 오해.)
- 3)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43)
“Now you’ve forgotten all your worries. (...) Completely seized the moment! (34)
(‘너희’를 주어로 잘못 파악.)
- 4) 조금만 힘주어 밀면 쓰러지거든요. 얘기가 잘 안되면 밀어보세요. (178)
She’ll fall over if you give her a little nudge. Give it a try if you can’t get her to talk to you. (146)
(얘기가 잘 안된다는 것은 바로 물구나무를 계속 서고 있는 영혜를 설득해 똑바로 서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번역자는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영혜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 수 없다면’이라고 옮김. 더구나 간호사는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영혜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상황임.)
- 5) 그녀는 한발 한발 침대로 다가간다. 차라리 눈이 안 보이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누군가 자신의 눈을 가려준다면. (183)
Inhye... slowly approaches the bed. If only one’s eyes weren’t visible to others, she thinks. If only one could hide one’s eyes from the world. (150)
(역시 한국어 이해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역. 지시 대상 파악 오류. ‘인혜 자신의 눈

이 멀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인혜 자신의 눈을 가려라도 주면 좋겠다'는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함.)

6) 지난번에 짓물렀던 부위는 더 이상 덧나지 않았다. (183)

The area that had been inflamed last time still hasn't got any better. (151)

(‘덧나지 않았다’를 ‘더 낫지 않았다’로 착각한 듯.)

7) [끔찍한 일을 겪은 뒤에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용변을 보고 몸을 씻고 살아간다.] 때로는 소리내어 웃기까지 한다. 아마 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잊혀졌던 연민이 마치 졸음처럼 쓸쓸히 불러일으켜지기도 한다. (204)

And sometimes they even laugh out loud. And they probably have these same thoughts, too, and when they do it must make them cheerlessly recall all the sadness they'd briefly managed to forget. (168-69)

(대명사 주어 ‘그’를 잘못 이해하고 ‘생각’과 ‘연민’의 주체도 오해함.)

8) [동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도 마세요. 이젠 링거바늘도 뽑아버리려고 해서, 아예 안정실에 강박해놓고 진정제 맞히고 링거를 놓습니다. (176)

She's stopped talking. She's also been trying to pull the IV needle out, so we had to get her into the secure room and give her a tranquilizer before we could put it back in. (145)

(구어체 표현을 이해 못하고 개별 단어들(‘말’talking, ‘도’also, ‘말다’stop)을 대충 조합해 놓음.)

9) 그녀 역시 신중한 성격이긴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밝고 씩씩한 편인 데 반해, 영혜의 심중은 어느 때건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158)

She'd always had this side to her, of course, but she had also been perfectly cheerful and sociable when the occasion called for it. Somehow—not suddenly, but over a period of time—she became difficult to read. (129)

(대명사 ‘그녀’가 인혜를 지칭하는데 ‘영혜’로 오독함.)

10) 지난 한달 동안 염려했던 큰 병의 가능성은 오히려 사소한 번민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197)

Instead of a serious illness, a possibility which had caused her no end of worry over the past month, it had been nothing but a minor giggle. (162)

(암일지 모른다고 그 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새로 생긴 번민과 고뇌, 즉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이었다는 원문의 의미를 잘 못 파악함.)

11) 의사의 태도는 진지하고, 조금 긴장되어 보인다.

가족으로서 지켜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빨리 피해 계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한다.

괜찮을 것 같아요. (210)

The doctor seems sincere, and a little tense. ‘It can be a difficult thing for a family member to witness. If we decide that your presence is complicating things, it’s best if you get out of the way quickly.’

‘I understand,’ In-hye says. ‘It’s just--’

The doctor cuts her off.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173)

(대사의 주제와 전체적 흐름 및 의미를 잘못 파악함.)

참고문헌

- 김가희 (2016)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The Vegetarian*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29-44.
- 김고금평 (2016.6.1) 「오기, 오역도 새로운 시도의 번역... “외국문화 중심의 해석 필요」. 『머니투데이』, 2017년 7월 27일 검색.
-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 김 번 (2017)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5-34.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바스넷 S/윤선경 옮김 (2012) 『번역의 성찰』, 서울: 동인.

박선영 (2016.5.19) 「절묘한 개입... 한강을 빛낸 번역은 달랐다」. 『한국일보』, 2017년 7월 27일 검색.

신준봉 (2017.1.10) 「없는 문장 넣고 원문 빼고... 『채식주의자』 번역논란」, 『중앙일보』, 2017년 7월 27일 검색.

_____ (2017.3.6) 「『채식주의자』 곳곳 엉뚱한 번역... 스미스, 주어생략 이해 못 해」, 『중앙일보』, 2017년 7월 27일 검색.

이강선 (2016) 「고맥락에서 저맥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제 57집: 277-312.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16권 5호: 89-112.

이종인 (2009) 『번역은 글쓰기다』, 서울: 즐거운 상상.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이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 137-162.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조원미 (2013)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서울: 이다새.

조재룡 (2017)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90 (2017년 봄호): 689-713.

한 강 (2007) 『채식주의자』, 서울: 창비.

Montgomery, Charles (2014)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15 June. Available at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Dowd, Vincent (2016) “Han Kang’s *The Vegetarian* Wins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BBC News*, 17 May. Available at <http://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36303604>.

Flood, Alison (2016)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serves up victory to *The Vegetarian*, *The Guardian*, 16 May.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6/may/16/man-booker-international-prize-serves-up-victory-to-the-vegetarian-han-kang-deborah-smith>.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Trans. Debora Smith, London: Portobello.

- Khakpour, Porochista (2016) “*The Vegetarian*, by Han Kang, *The New York Times*, 2 Feb.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6/02/07/books/review/the-vegetarian-by-han-kang.html>.
- Landers, Clifford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ietzsche, Friedrich (1882) “Translation as Conquest, in Douglas Robinson (ed) *Western Translation Theory from Herodotus to Nietzsche*, Manchester: St. Jerome, 261-62.
- Parks, Tim (2016) “Raw and Cooked,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 June. Available at <http://www.nybooks.com/daily/2016/06/20/raw-and-cooked-translation-why-the-vegetarian-wins/>.
- PRI (2016) “How a Self-taught Translator Created a Literary Masterpiece One Word at a Time, 28 May. Available at <https://www.pri.org/stories/2016-05-18/how-self-taught-translator-created-literary-masterpiece-one-word-time>.
-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Douglas Robinson (ed) *Western Translation Theory from Herodotus to Nietzsche*, Manchester: St. Jerome, 225-238.
- Woo, Jae-yeon (2016) “‘The Vegetarian’ translator: Translation is ‘humble’ yet ‘creative’ work of art, 15 June. Available at <http://english.yonhapnews.co.kr/culturesports/2016/06/15/0701000000AEN20160615009000315.html>.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as a Translation

Lee, Inkyu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off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as a translation. Despite many favorable reviews and being awarded the Man Booker prize, Smith's English translation of Han Kang's 『채식주의자』 has provoked a controversy over its quality and unique translation strategy.

Throughout the process of her translation, Smith quite often takes uncommon liberties, 'flying' as high over the original sentences as to almost recreate Han Kang's novel in her own way. This 'super-high-flying' strategy, developed from her thoroughly reader-oriented view on translation, produces too many 'high-flown' transformations in terms of contents. These transformations mainly take three forms: content reconstruction, addition, and omission. All these result in serious distortions of the original content, which leads to an inevitable failure to faithfully reproduce the literary effects of the original work and therefore frustrates the target reader's solid appreciation of the novel.

In spite of its apparently high readability, Smith's translation also has too many errors or misinterpretations. What these errors tell us is the fact that her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is yet on a pretty low level. This very lack of sufficient ability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we may say with good reason, must have left her no other choice than to take the easy high-flying strategy of taking liberties from the original text.

Smith's translation has made quit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aising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All things considered, however,

Smith's *The Vegetarian* cannot be said to be a 'good' translation, and its many serious errors need to be corrected through a revised edition.

▶ Key Words: *The Vegetarian*, translation criticism, translation strategy, translator's intervention, translation errors.

이인규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iklee@kookmin.ac.kr

관심분야: 번역비평, 소설번역, 영국소설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